



주저 주저하지 말고 마음대로 넘어설 줄 알아야

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항상 이날까지 설법을 해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질문을 해서 서로 응대가 있어야만 알아지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서요. 그러니까 오늘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.

질문자1(여) 큰스님! 질문 올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저는 처음 선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조금씩 체험이 되는 과정을 시나 글로 적어서 스님에게 몇 번 보여 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어느 날 스님께서 “백지 편지를 써 보세요.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 백지 편지라는 편지 아닌 편지를 쓰기 위해 저는 한 일 년여를 몸부림을 치면서 참구에 참구를 거듭했습니다.

그러던 어느 날 들어가는 길은 천 갈래 만 갈래이지만 나오는 길은 한 길뿐이라는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니 참모경이로움의 세계였습니다. 여태까지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에 정말 정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선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.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‘산은 산이다. 물은 물이다.’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길이 한 길임을 알고 나면은 무슨 별천지 세계가 벌어질 줄 알았던 그런 희망이 공부할 조금 더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인 평상심,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. 한편으로는 ‘별것 아니구나.’ 하는 생각도 들면서 기고만장한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.

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법회도 조금 빠져먹고 옛날 그림책 구경도 조금 조금 하면서 그러저럭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지원의 스님께서 질문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었는데 산이 산이 아니며 물이 물이 아니라는 그 말씀에 저는 멍해졌습니다. 그래서 산이 산이 아닌 도리, 물이 물이 아닌 도리를 참구하기 위하여 두 달여를 몸부림을 쳤습니다. 참구에 참구를 거듭하고 보이지 않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문 아닌 문에 부딪치면서 너무나 답답한 가슴을 이길 길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 보기도 하였습니다.

그러던 며칠 전 증조모님 제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. 하루 종일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상

을 차리고 있는데 지방을 써 가지고 상 위에 탁 올리는 순간 큰스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. 큰 바다에 파도가 일어 한 줄기 물방울로 나투어진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오미요, 파도가 맺어 물방울이 가라앉음에 가는 것인데 그 큰 바다에 하나가 돼 있는 조상을 어느 물이 내 조상이라고 붙잡고 늘어지려 하는가, 언제까지,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그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.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너무나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느끼고 ‘아, 이것 이구나.’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‘고정된 관념을 깨면, 증조모님이라는 그 고정관념만 깨서 절대의 바다로 보낼 수만 있다면 아, 그렇다면 그 절대의 바다는 어디에 있는가?’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

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절대의 바다는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. 그렇게 생각이 될과 동시에 상이 휘 돌러져서 저를 향하는 것입니다. 여태까지 증조모님을 향하여 절을 올리고 밥을 올리고 수저를 올렸던 그쪽의 상이 나에게로 휘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저는 관념적으로 알았던, 이론으로 알았던 그런 모든 것보다 너무나 가슴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그 순간 번개같이 번쩍 번쩍 번쩍 그 느낌의 의식들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를 스

쳐 갔습니다. ‘아, 이것 이구나. 산이 산이라는 그 관념만 깨고 물이 물이라는 그 고정관념만 깨면, 산으로 물이 흐르는 소식과 진흙소가 강물을 건널 수 있는 그 소식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?’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.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,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. 그런데 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. 큰스님 말씀이 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법회에서 수없이 들었지만 무심코 들어 넘겼던 그 말씀이 그 순간 너무나 아프게 저를 찔러 댔습니다.

큰스님!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굳이 말로 이렇게 질문을 올려야 하고 대답해야 하는 큰스님의 고통을 정말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큰스님의 그 말씀, 떠오른 그 말씀이 도저히 제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큰스님께서 그 절대의 바다마저도 마셔야 하고 마신 것을 토해야 하고, 토한 것을 함께 더불어 먹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. 그 절대의 바다까지 오기에도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절대의 바다마저 삼키고 토하고 더불어 먹어 살리라는 그 엄청난 도리를... 가도 가도 너무나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잠시 큰 바다 위에 한 방울의 물로 나투어진 저희들이

현상계에 머무는 이 짧은 기간에 그 엄청난 도리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고 갈 수 있을는지 큰스님의 높으신 법문을 바랍니다.

큰스님 우리는 지금요, 시공을 초월해서 살고 있어요.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고 있다고요.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예가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.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산다. 넘어서서 산다. 우리가 정신이 아니라면 몸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? 저 언덕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정신계거든요. 그리고 내가 항상 말했죠? 고정됨이 없이 잘나잘나 나뉜다. 고정된 게 없이 화해서 잘나잘나 나뉘면서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생활을 한다. 걸어오는 발자취가 앞으로 견지 않았으니까 없고 뒤는 자꾸 가니까 없고, 현재에도 공해서 떠벌떠벌 떼어 놓고 올 뿐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일체 생활을 하되 힘이 없이 하는 것이다.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대로 아가 말따따나 ‘물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이만하면은 아주 족한 것을...’ 하는 그런 말이나 똑같은 얘깁니다. 그리고 또 고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.

우리가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애쓰고 가는 이 마당에서 만법을 들고 내는 데 조금도 손색

이 없다. 또 천차만별의 만 가지 일을 연구한다 해도 손색이 없다. 지금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발명해서 발표를 하고 이랬지만 이 부처님 법이란 아주 심오하고도 묘하고 광대하고도 무변해서, 즉 말하자면 내가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. 어떤 거는 연구해서 되고 어떤 거는 안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거..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거 하나 건지지 못하는 게 없다. 왜냐?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도, 하다 못해 물 한 방울도 안 돼 보신 분이 아니다 이거야. 물 한 방울조차 돼 있던 분이기 때문에 물 한 방울에도 그 이름이 거기에서 솟아오른 다 이 소립니다.

그러니 그 천차만별의 이들을, 천차만별의 모습들을, 천차만별의 마음으로써 연구하고 사는 그 모습들이 모두가 부처님 한마음에 들어 있으니, 그 마음 하나에서 다, 천차만별의 가지가 가지가지마다 거기에서 풀리고 나온다. 우리가 뭐를 한 가지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해서 남들이 다 알게 하는 어떤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어서 놓는다 하더라도, 이것은 우리가 본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기 때문에 본래 정수에 컴퓨터로, 자동적인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거든지 능히 주어지니까 내 마음을 마음대로, 내 마음으로 마음대로 넘어서라 이거예요. 내 마음이 주저주저하지 말고 마음대로 넘어설 줄도 알아야 된다. 길을 줄도 알아야 된다. 내 마음이 깊은 물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. 내 마음이 우주법계를 돌 줄 알아야 된다. 그리고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거를 그냥 굴릴 줄도 알아야 된다.

이 모두가 전체, 바로 그 도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그대로 합류화되어 돌아간다는 수레와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.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오신을 다 한데 합친 통을 굴려서 마음대로 적응하고 마음대로 연구하고 마음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도,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연구해서 내놓을 줄 알았지,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주의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. 우주의 에너지는 건당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우주에도, 이 우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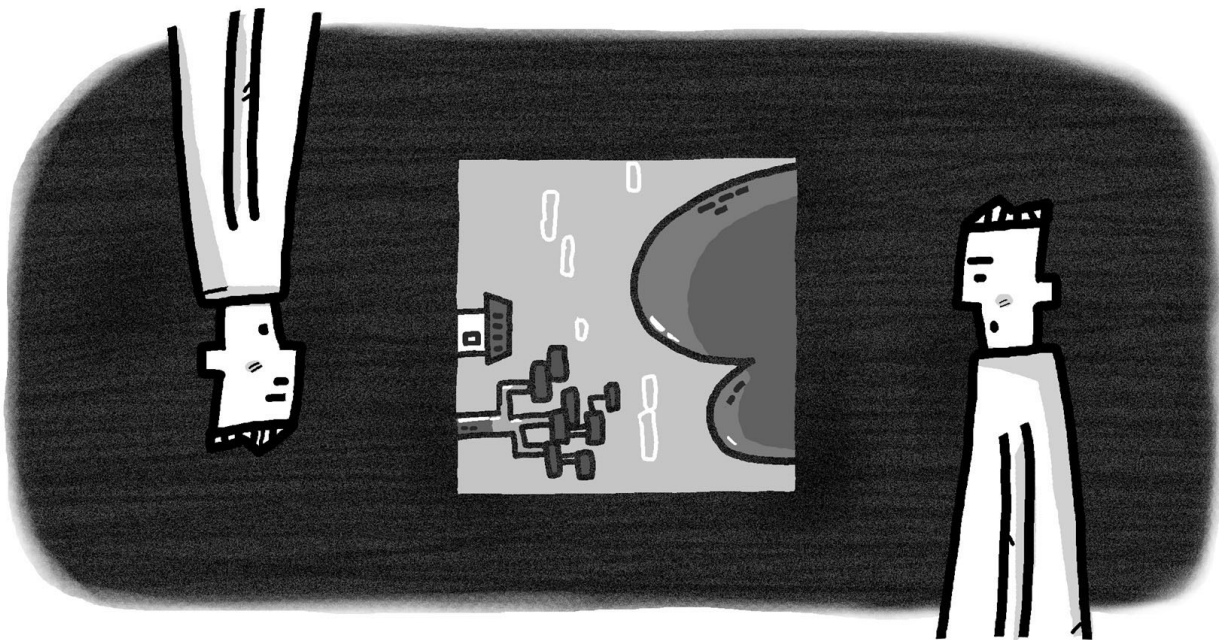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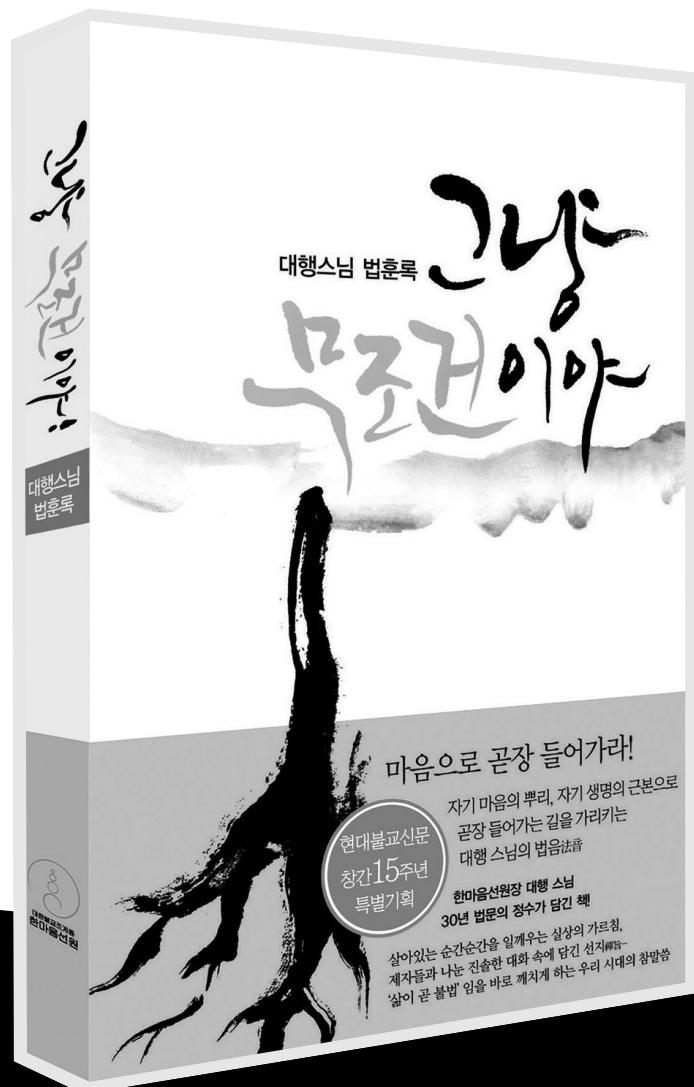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30면으로 계속

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!



자기 마음의 뿌리,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
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
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

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-
‘삶이 곧 불법’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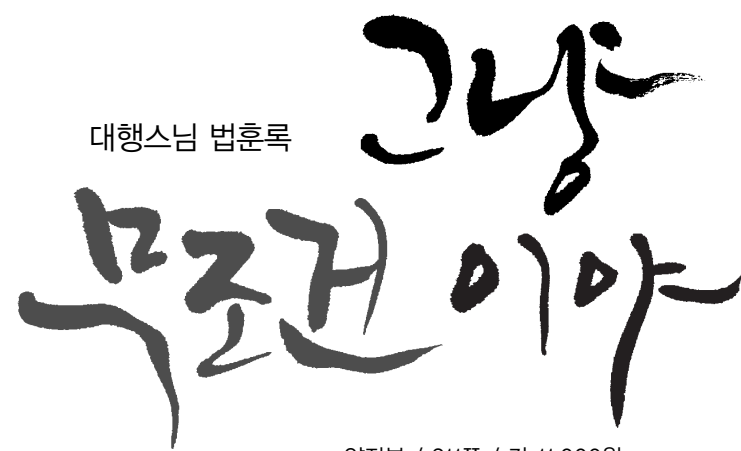
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.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.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,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.

- 본문 중에서

주문은 현불샵!
02)2004-8216

농협 053-01-269062
(주)현대불교신문사

www.hyunbulshop.com



양장본 / 21쪽 / 값 11,000원

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-13(수송동) 2층 현대불교 현불샵